

Xαχα시에 도시텃밭이 생기다.

Xαχα시는 도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농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매년 방이동 일대 1,231평 규모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. 농약 살포 없이 건강한 식자재를 직접 재배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.

특히, Xαχα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함 없이 텃밭을 일굴 수 있도록 준비했다. 농업용수 급수부터 각종 농기구 대여, 봄·가을 연 2회 친환경 퇴비 제공, 간이쉼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지원한다.